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친국일문양상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전홍용 편집: 양재용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음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고전 15:3~4)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성공과 축복의 복음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수호하고 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발맞춰 복음을 호리고 있기에 더욱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예견된 사실이기도 합니다(딤후 3:1~5). 복음 앞에 거하려고 할 때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요 16:33). 현재의 고난이 아닌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로 10:15)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모른 채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 외치십시오. "예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

6월 교회일정

6일 (주) 여름계절학교 교사강습회(12:10)
9일 (수) 정기당일(수요2부예배 후)
25일 (금) 제2차 청지기훈련(금요찬양집회 시)
27일 (주) 제3차 학습세례식(찬양예배 시)

복음
The Gospel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①
(고린도전서 10:1~4)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대로 그리스도에 기초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사람은 교회에서의 모습과 삶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세상에서의 행복과 성공에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마저도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자신만의 행복 목록을 삶의 기초로 삼는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 참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죄다(로 14:23; 요 16:9). 이 죄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듣자.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초와 소망에 대해 기록하였다. 그 기초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다(시 18:2). 우리는 오직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사 26:4).

1. 그리스도는 견고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견고한 반석이다(시 62:2). 자신이나 세상에 기초한 믿음은 작은 진동에도 흔들리지만 그리스도에 기초한 믿음은 영원토록 변함없다(히 13:5). 아주 단순한 원리지만 매번 우리는 그리스도보다 세상

을 따른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그랬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을 막아 주는 구름기둥, 밤에는 추위와 어둠을 밝혀 주는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지만 40년 동안 그들은 불평뿐이었다. 그들의 기초에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으로 볼 때는 차이가 없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나 기초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결말은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마 7:24~25). 항상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지만 삶은 정반대의 것을 원하며 자존심을 앞세우고 있는가? 이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자.

2. 그리스도는 힘을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힘의 원동력이다(시 62:7). 그리스도에 기초할 때 우리는 그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공급받게 된다(고전 10:4). 그 생명수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보증하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견도록 자기를 부인하게 하며 담대히 나아가도록 힘을 준다(엡 6:10).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한다. 이토록 놀라운 힘의 원천인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요 7:37~38). 예수님이 주시는 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성령의 능력이다(요 7:39; 요 4:14). 그리스도의 반석에 기초할 때 능력을 받는다.

- 다음 호에 계속

PAUL'S CROWN OF JOY

(18) For we wanted to come to you—I, Paul, more than once—and yet Satan hindered us.

(19) For who is our hope or joy or crown of exultation?

Is it not even you, in the presence of our Lord Jesus at His coming?

(1 Thessalonians 2:18~19)

Today's Bible verses reveal Paul's wonderful anticipation in meeting Christ at His return with those he won on to Christ. During his earthly travels, Paul experienced some terrible times. He suffered beatings, a stoning, imprisonments, a snake bite, and many types of hateful rejections from those he cared so much about. He ministered Christ's love to many people, and deeply wanted them to practice their faith and not fail. His hope was for them to come all the way with Jesus. Whenever Jesus returns, I definitely want to see Him first, and then I want to see you. You are my true joy and glory. Who is included in your crown of joy? Do you tell others about Jesus? Are you excited about meeting the people at Christ's return who became Christians because of your sharing and living the good news with them? Paul's life focused on lost souls. His mission was to win the lost at any cost. The joy of today's Christians appears locked on things associated with health and wealth. Their idea of joyful anticipation centers on earthly successes. It seems like a lot of well meaning people have the wrong attitude about Jesus. Let's get inspired by Paul's attitude, so that we can change our direction now and experience the real crown of joy later.

The desire of Paul's heart was for Israel to be saved. He told the church in Rome, "Brethren, my heart's desire and my prayer to God for them is for their salvation"(Rom. 10:1). The majority of Israel believed in God's law, not Jesus. Paul zealously explained to them that Moses' law was not God's answer, but that God's grace found in Jesus Christ was His answer. Israel's salvation was constantly at the top of Paul's prayer list. What are the desires of your heart? How can they compare with the souls to be saved? When Paul was hungry, he desired a soul more than food. When Paul was thirsty, he desired a soul more than water. When Paul was in jail, he desired a soul more than freedom. When Paul was being judged, he desired a soul more than justice. Today's 21st century Christians desire earthly things more than souls. Jesus cared for the people around Him. "Seeing the people, He felt compassion for them, because they were distressed and dispirited like sheep without a shepherd"(Mt. 9:36).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he harvest is plentiful, but the workers are few. Therefore beseech the Lord of the harvest to send out workers into His harvest"(Mt. 9:37-38). Why did Jesus come to this earth? He said. "For the Son of Man has come to seek and to save that which was lost"(Lk. 19:10). If Jesus comes to your house, is His heart's desire for you and your family to gain more material wealth? Jesus loved the lost. Paul loved the lost. Where is your heart's desire today? Please don't let it look too different from Paul.

The deciding factor in Paul's behavior was his ultimate concern for lost souls. He used every means to save some more. "For though I am free from all men, I have made myself a slave to all, so that I may win more. To the Jews I became as a Jew, so that I might win Jews; to those who are under the Law, as under the Law though not being myself under the Law, so that I might win those who are under the Law; to those who are without law, as without law, though not being

without the law of God but under the law of Christ, so that I might win those who are without law. To the weak I became weak, that I might win the weak; I have become all things to all men, so that I may by all means save some"(1 Cor. 9:19-22). In each differing situation Paul accommodated so as to win as many as possible. When you go to church or work or wherever, and others mistreat you, you tend to fight back. Paul didn't fight back. Even when he was beaten, he still looked for the chance to talk to others about the gospel. He met people where they were to win them over to Jesus. What makes your behavior different than a non-Christian? Is it different because of your concern for souls? Is it designed to impress people toward liking you or loving Jesus? Are you careful not to cause others to stumble? How is your life affected because of your concern for souls?

The desperation in Paul's manner and message was significant. His method was centered on the urgency of now, not later. He urged people not to receive the grace of God in vain. "for He says, 'At the acceptable time I listened to you; and o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Behold, now is 'the acceptable time', behold, now is 'the day of salvation'"(2 Cor. 6:2). Paul emphasized now as the day of grace. Judgment time is coming. The condition of our current environment is terrible, but still we have time to save some. At every hour and every moment we can save souls. Paul said. "but in everything commending ourselves as servants of God, in much endurance, in afflictions, in hardships, in distresses, in beatings, in imprisonments, in tumults, in labors, in sleeplessness, in hunger, in purity, in knowledge, in patience, in kindness, in the Holy Spirit, in genuine love, in the word of truth, in the power of God; by the weapons of righteousness for the right hand and the left, by glory and dishonor, by evil report and good report; regarded as deceivers and yet true; as unknown yet well-known, as dying yet behold, we live; as punished yet not put to death, 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as having nothing yet possessing all things"(2 Cor. 6:4-10). Amen. Paul made every day and every circumstance a time of harvest. He went against many people to proclaim Jesus Christ. He always stood up to preach Jesus, even when doing so would cause him physical harm. When others insulted him, he came back at them with the plea that now was their chance to accept Jesus. The sincere urgency in his voice resulted in many souls won.

My dear friends, please let your crown of glory be filled with many people. Who will you meet on heaven's street because you cared for them?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your life? Are you looking forward to meeting those you have won? Are you ready for Christ's return? Will you receive the crown of joy? All believers are so blessed to hear about Paul's witnessing. His life was so amazing. He went from being a man of the law to a man of Christ. He changed so dramatically because of Jesus Christ. Please open your heart and let Jesus change your attitude, your joy, and your crown. I want you to meet Jesus Christ with happiness, glory, and praise. I want you to meet all the beautiful souls that you won over to Jesus. 卐

바울의 기쁨의 면류관

(18)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19)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사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2:18~19)



김성관 목사

오늘의 성경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바울의 기대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지상 사역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뱀에 물리고, 자신이 그토록 애정을 가지고 돌본 사람들에게서 온갖 반대를 당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고 그들이 믿음을 실천하며 나오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소망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주님을 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참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면류관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삶의 초점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건강과 부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하며 기대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많은 선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초점을 바꾸어 진정한 기쁨의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롬 10:1). 대다수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아니라 율법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분의 대답이라는 것을 열정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바울의 기도 제목 가운데 최우선이었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영혼 구원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배고플 때도 음식보다 한 영혼을 더 원했으며 목마를 때도 물보다 한 영혼을 더 찾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자유보다 한 영혼을 더 갈망했습니다. 판결을 받았을 때조차도 그는 정의보다 한 영혼을 더 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보다 세상적인 것들을 더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마 9:36).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마 9:37-38).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눅 19:10).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더 많은 물질적인 부를 얻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잃어버린 자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소원과 크게 다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들을 향한 집중력

바울의 행동을 결정지었던 요인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의 절대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같이 하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고전 9:19~22). 바울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 각각의 상황마다 다르게 대처했습니다. 교회나 직장 혹은 다른 장소에서 사람들이 부담하게 대할 때 여러분은 맞대응하려는 경우가 많습니. 하지만 바울은 맞서 싸우지 않고 매를 맞을 때조차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비그리스도인과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까? 그 관심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있습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지금이 중요하다

바울의 태도나 메시지에 나타난 절박함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긴급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촉구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 바울은 지금이 은혜의 날이라고 강조합니다.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상황은 험악하지만 우리에게 아직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매순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믿어 건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때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려했으며 약한 이들과 아픈 자들을 보살피고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뎠던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쁨을 기뻐하고 기뻐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4-10). 아멘. 바울은 매일 모든 상황을 추수의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기 위해 많은 사람과 맞섰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항상 곤경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핍박을 받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당할 때에도 바울은 돌아서서 지금이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라고 그들에게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한 권고가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의 면류관이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길 원합니다. 천국의 거리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한 영혼들을 만날 것에 대해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될까요? 모든 신자가 바울의 증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의 생애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그는 율법의 사람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아주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마음을 열어 예수님에게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면류관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기쁨과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때에 여러분이 예수님께 인도한 많은 아름다운 영혼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ㄴ

거듭난 삶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알고 있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슬프게도 많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할 뿐 진실로 그 이름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고 믿음의 길을 걷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참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서로 용서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되었는가?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며 당신의 이름을 죄인들에게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용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엢 4:32). 용서에는 수적인 제한이 없으며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마 18:22).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때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막 11:25). 용서의 기준과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외식의 늪에 빠지게 된다. 오직 십자가를 붙들며 무제한의 용서를 하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즐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도 담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은총으로 충만한 때이기 때문이다(고후 12:10).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것도 없으며 약하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신자들은 이야말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은혜의 비밀이다(고후 6:1~10). 세상으로부터 받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빌 1:29).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한 매질로 거의 죽게 되었던 적이 있었지만 주님이 들기시커녕 오히려 답답하였다(빌 3:10). 십자가의 능력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엢 4:13).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면 나의 계획, 수고, 간절함 등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마 18:19~20).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하며 복음을 전하자.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으로 가득한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걷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메시아의 죽음' 요약(1)

'메시아의 죽음'은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고정하게 만든다.

흔락한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는 복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메시아의 죽음'의 일출은 2009년 9월 7일,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되어 매주 일요일마다 위임목사님이 설교하신다.)

1. 서론 메시아의 죽음은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표본이다. 기독교의 중심과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다(롬 10:8~12). 구원의 문제는 오직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해결된다(롬 10:13, 11:13, 20:25, 34~36).

2.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점 메시아의 죽음은 신화가 아닌 역사 속에 분명히 실재했던 확실한 사실이다. 이제 우리 차례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을 뜻 영혼들에게 이야기하자.

3. 예수님의 고난의 역사상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성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초점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외면하지 말자.

4. 예수의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마태와 마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의 필요성이다. 종교인들이나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인간에게 구원을 위한 어떤 가능성도 찾을 수 없기에 예수님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했다.

5. 예수의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마태와 마가는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였다. 마태와 마가는 출로 고난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종점적으로 기록하였다.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돕는 손길이 있었음을 기록하였다.

6. 예수의 고난이 주는 신학적인 위치(요한복음)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출로 고난당하셨음을 강조하였다. 누가는 고난의 현상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하늘의 손길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떠한가? 요한은 예수님의 고난에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으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음을 강조하였다.

7. 고난의 이야기의 범위와 내용 우리가 기억해야 할 고난 이야기의 범위와 내용은 셋째새로 향하여 가신 예수님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뒤 무덤에 잠시되신 예수님까지이다. 이 범위와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요한 복음(18:1~19:42), 마가 복음(14:26~15:47), 마태복음(26:30~27:66), 누가복음(22:39~23:56)

8. 마가복음과 마가복음 이전에 있었던 문제들 예수님의 고난을 다룰 때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가는 예수님과 시도를 곁에서 모든 행적을 목격했던 제자였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 오순절 성령강림의 사건도 바로 마가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며,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도 했기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정통했다.

9. 마태복음에 쓰여진 특별한 자료와 고난의 이야기 마태는 마가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의 신학적인 견해는 마가와 달랐다. 마태 자신이 세관이었으며 유대 역사와 정치에 능통한 서기관이었던 만큼 그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마태는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인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데 집중하였다.

10. 누가의 예수 고난의 이야기와 그의 자료들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Q자료(예수의 어록이나 설교를 담은 자료)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누가복음의 1/3 정도는 또 다른 제3의 자료를 수집하여 누가복음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이 총 661절로 되어 있는데 이 중 350절은 마가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11. 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자료① 누가는 마가복음 외에 특별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누가복음 23:2~25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5:2~20 말씀에는 유대총독이었던 빌라도만 언급하였을 뿐 헤롯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빌라도뿐만 아니라 갈릴리의 베리야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세례 요한을 죽인 왕)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12.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다(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자료②) 누가는 모든 기사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였다. 또한 누가는 마가복음 외에 또 다른 특별한 자료를 인용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많이 유사하지만 마가복음에 없는 부분도 기록되어 있다. 누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 가시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기록했다. 고통과 주저의 십자가지만 그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13. 예수께서 물리시다(누가가 사용한 특별한 자료③) 누가복음 23:50~56, 마가복음 15:42~47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장시되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누가는 다른 특별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메시아의 죽음을 확실하게 설명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선교지 중심에서 더 먼 지역의 동네를 찾아 다녔다. 한국의 50년 전과 같았다.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밝고 맑은 모습이었다. 40도의 날씨로 인해 온 몸이 땀까지 나서 아프고 힘들었으나 교회와 교구 식구들의 기도로 새 힘이 솟아 지치지 않았다. 사역 중 새삼 믿음과 구원의 반열 속으로 불러 주신 것과 늘 감사 기도와 찬양 속에 살게 해 주시고 눈동자 같이 늘 보호해 주심을 무한 감사했다. 오늘날 나라와 개인이 기독교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사모하듯이 우상이 가득한 이곳도 빨리 주님을 모시고 환영하며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선한 목적을 계속 주실 것을 믿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끝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물이 없다면 다했 것입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예수의 보혈을 오늘도 내일도 전하길 원하며 앞에는 성령 인도 뒤에는 기도후원, 낮에는 복음전파 밤에는 영적무장하여 우리가 뿌린 씨앗이 다 알곡이 되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상의 나라인 이 땅을 덮으소서. 당신의 충만으로 우리와 세계의 성도를 덮으소서,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서영남(권사, 6교구)

주님의 손길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그 은혜에 힘 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에 따라 선교지로 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린이 사역부터 시작하여 만나는 대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할 때마다 그들은 해맑은 미소로 전도지를 읽으며 복음 속에 속속 빠져드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참 신이 나았습니다.

얼마를 그렇게 전했을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비아냥거리기에 잠시 의아해 하다가 그래도 전도를 하려고 했더니 어느새 일이 커지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어린이에게 보호자 없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거슬렸고, 신고가 들어가 우리는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끝내 초등학교 주변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나도 아쉬운 마음으로 돌아선 것이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라나면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그곳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보다 더 밝은 내일을 맞이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모르고 지난날에만 안주하며 살고자 하는 어두운 표정의 그들이 불쌍하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내일의 계획을 알 수 없기에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의 손길이 어찌 우리를 그대로 두실까 하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찬양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과 찬양이 울렸던 그곳, 지금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집사, 24교구)

성령의 능력으로, 총력교회주변전도

지난 수요일 총력교회주변전도일을 맞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만났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정일(권사, 19교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도 만나고 싶다.”

김예란(집사, 3교구)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영혼을 만나려고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예비된 영혼을 꼭 만나게 하옵소서.”

강순용(집사, 4교구)

“전도할 수 있는 여건을 주님께 감사하며 빚진 자의 심정으로 기쁘게 나아갑니다.”

(무명)

“장자는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길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신관희(집사, 3교구)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3일(화) ~ 6월 11일(금)	16교구 1팀	문연식

현재 지역 중언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25일(화) ~ 6월 3일(목)	13교구 1팀	김대용
5월 25일(화) ~ 6월 3일(목)	18교구 3팀	공석성
5월 26일(수) ~ 6월 3일(목)	5교구 2팀	김옥진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7일(월) ~ 5월 26일(수)	직원 1팀	김병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님 믿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온 삶이었지만 요점처럼 예수님 믿는 기쁨과 감사가 넘친 적은 없었다. 눈물겨운 회개와 감사가 넘치는 예배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충현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린다. 청년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요 3:16) 나는 주님 위해 살려고 신학을 공부했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왔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시작된 돕는 사역자, 심방전 도사의 길,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날 위해 대속해 주신 은혜에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30여 년을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정년으로 사임을 하게 되었다.

이제부터 어떻게 주님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까? 고민하던 나를 하나님은 충현교회로 인도해 주셨고, 복음의 삶을 다시 확신케 하셨다. 예배하는 성전 안은 성령의 감동이 물결쳤고 성령의 위로와 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내 마음을 뜨겁게 흔들었다. 위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서게 되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단 했지만 지난 날들은 나를 위한 삶의 수고였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기도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옳다고 몸부림치는 사역이었다. 이런 나를 주님은 이제껏 참아주시신 것이다.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나를 변화시켰다. 나의 무지함과 나 중심적인 죄로 인해 울었다. 믿음이 없는 나로 인해 울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간 관계에서의 아픔, 삶의 고단함, 시행착오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며 상처 입은 이들과 함께 하고픈 열정, 나야할 바를 알지 못했던 괴로움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울었다. 맞은 다 할 수 없는 은혜에 내 가슴은 뜨겁게 물결거렸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

오늘도 주님은 나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고치신다. 이제는 나의 외가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은 자유와 능력을 믿는다. 예수님이 의롭다 인정하셨으니 천국의 자녀인 것이다. 두려움도 염려도 없다. 이제 나는 예수님 앞에 겸손히 기쁨으로 설 것이다. 회개함으로 나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나를 부인하므로 사방팔방이 복음의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와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만지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 하심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전하며 자랑하며 살 것이다.

정충현(청년1부)

송복임(성도, 1교구)

교만이 무너진 자리에 말씀이

서울로 직장을 구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간 선배와 같이 지냈고, 선배의 사정으로 제가 나오게 되면서 전세집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얼마 없어 여건에 맞는 집을 알아보면 중 어머니께서 역삼동 근처를 알아보시다 우연찮게 한 집사님이 관리하시는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으로 교회에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과 같은 충현교회로 말입니다. 대전에서 살면서 중고등학교 이후 내 교회라는 생각을 갖고 다녔본 교회가 없었습니다. 마냥 어리니 따라 졸졸 쫓아다니는 교회였고, 소속감 없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아예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서울로 와서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마냥 방구석에 틀어박혀 속으로만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가야 할 텐데’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하는 약자의 입장으로 무작정 교회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가족양육부에서 6개월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고 담당자가 저를 소개할 때에도 ‘충현교회에 올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나 속으로 ‘그냥 우연히 이름만 같을 뿐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제 생각일 뿐, 위임목사님을 통해 들려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저를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동안 세상을 향해 발바둥치던 내 모습을 뒤돌아볼 수 있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내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 주실 분인 내 내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내가 그 동안 찾던 교회였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갈 때 어머니는 나에게 “서울에서라도 교회 잘 다녀!”라고 당부를 하셨지만, 매번 저는 “집에 있을 때도 안 나갔는데 서울까지 와서 내가 나가겠어? 기대할 것을 기대해!”라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힘으로 살아 보다가 망가지고 주님이 채찍질하실 때 그 때 돌아가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내 힘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교만으로 가득했습니다. 내 힘으로 남에게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잘 할 수 있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교만은 1년을 채가지 못했습니다. 연속된 어려움으로 한동안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이렇게 충현교회를 알게 되고 이곳에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돌아오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영원히 죽었던 이 죄인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죄인 중에 과수보다 못한 이 딸을 위하여 예수님은 깊은 고난을 당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사망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나라로 갈 생각을 하니 감사하고, 변화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할 뿐입니다.

주일이면 온 가족이 믿음으로 주의 전으로 나와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도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남편은 항상 저의 기도제목이었습니다. 너무나 약하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어 그저 기도할 뿐이었고, 그런 저에게

주님은 더욱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8월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가 잘 되어 남편은 응급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은 심방을 받고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이후에 치료가 잘 되어 퇴원한 뒤 남편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지난 4월 둘째 주일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상 것은 믿을 것이 없으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렵니다.

손옥희(권사, 2교구)

중등부의 하루

설레는 마음으로 '갈릴리야'의 문을 활짝 열어 본다

10:00 열정의 교사 기도회

영혼들을 향한 소망을 품고 만경초에 달려온 선생님들.
"주님, 오늘도 학생들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인도
하옵소서!" 중등부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한다.

10:30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학생들은 하나 둘, 자신이 앉아 있는 자리에 적응을 해 간다. 어떤 이는 찬양대석에서, 또 어떤 이는 연금위원석에서, 모두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다. 아직은 서툴러 보여도 조금씩 조금씩.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찬양이 갈릴리야에 울려 퍼진다. 부르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보탬이 될 것이다.



목사님께서는 "클립 가얏"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이고 "싸이월드 클립?"이라고 소곤거리지만, 예수님의 공동체에 가입된 것을 안 후에는 아이들과 입가에 미소가 번져간다. 열정과 사랑이 듬뿍 담긴 목사님의 말



씀에 집중하며 웃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천국일본의 비전을 그려 볼 수 있었다.

11:15 선후배가 하나가 되는 친교시간



친교시간을 통해서도 엿보인다.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친교 시간. 오늘은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 3학년 선생님들의 귀한 찬양과 물동으로 시작되었고, 새로 온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등부에는 각색 다양한 달관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이 아주 많다. 중등부에서 느낄 수 있는 바람함과 학도함은



11:30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성경공부



오늘도 방금방글 웃어 주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 본다.

"예수님이 너

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니?"란 질문에 한 학생이 대답한다.

"저는 아는데, 표현은 못 아겠어요."
이런 예쁜 학생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주신 예수님께 또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마음속으로 외쳐 본다.



12:00 다음 주일을 위한 열린 교사회

목사님과 다음 주일 공과를 미리 공부하며 학생들을 떠올려 본다. 이후 개별공과에 대한 나눔이 시작된다. 나눔 속에서 각 선생님들의 삶을 듣게 되고,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된다. 80여 명의 많은 선생님들이 서로를 아끼며 주며 늘 말기차게 웃는 "사랑의 중등부"라는 점이 새삼 느껴진다. 사랑이 가득한 선생님들을 보며 늘 고마운 사랑에 고개가 숙여지는 하루였다.



5월 달 이야기

5월 30일(오늘)에는 새진구 초정전도집회가 있는 날이다. 많은 교사와 학생이 준비하고 있으며 또 태신자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공동체이기에, 주님의 영혼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사랑의 중등부이기에, 나날이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중등부가 되길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 본다.

중등부 예배 · 매주일 오전 10:30 · 갈릴리야

취재 · 이선화 기자

십자가의 길

맹신, 광신, 참 믿음

성경주석가 Wiersbe는 신약성경을 강해하면서 믿음을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째는 맹신(dead faith), 둘째는 광신(demonic faith), 그리고 셋째는 참 믿음(dynamic faith)이다. 맹신은 '자기'에 갇힌 죽은 신앙이다. 믿기는 믿되 자기를 넘어서지 못한다. 믿음은 있지만 결국 그 믿음은 자신에게 흘러 있다. 광신은 자기를 넘어 믿음의 대상에 흘러 있다는 점에서 맹신과 다르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향한 절대적인 헌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자기에 (自己愛)의 확장일 뿐이다. 엄청난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혹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의 구원을 추구하는 악마적인 신앙이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참 믿음이다. "참 믿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히 10:22). 맹신과 광신이 득세하는 시대에 참 믿음을 갖기란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쉽다. 자기를 부인하면 되기 때문이다(마 16:24). '나'를 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다.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560	김선화	14	창년1부	리병순(14)	582	리병	25	외신부	전종일(4)
561	소관식	18	창년2부	전은순(18)	583	최희도	25	외신부	김지선(7)
562	박정규	8	창년2부	김동원(8)	584	이영선	11	대학부	성지영(11)
563	류영선	19	창년2부	임영택(19)	585	박민선	12	고등부	정희영(12)
564	송희경	3	창년1부		586	이소영	12	고등부	정희영(12)
565	김태현	3	창년2부	김경숙(18)	587	김시민	2	초등부	이혜영(13)
566	이영선	9	대학부	김현(18)	588	유정선	13	창년2부	최승환(13)
567	남지영	20	창년1부	이석희(18)	589	이요한	7	창년2부	남정환(18)
568	곽재민	14	창년2부	임영희(14)	590	이홍성	19	창년1부	정희영(17)
569	박태수	22	창년2부	기숙현(15)	591	이지연	10	대학부	이은혜(18)
570	안은지	6	창년2부	황세연(12)	592	정아리	13	창년1부	문희근(3)
571	임혜미	3	창년1부	김영희(21)	593	정재준	13	대학부	문희근(3)
572	남요한	18	창년1부	안성희(16)	594	윤정선	23	대학부	정지현(10)
573	박희선	17	고등부	이은선(16)	595	민경일	22	창년1부	김진희(14)
574	이혜숙	2	창년1부	홍재경(14)	596	류정민	19	대학부	김태현(10)
575	노수정	16	대학부	황하진(19)	597	김승아	22	창년2부	이영선(14)
576	김정민	1	고등부	송재경(13)	598	안영희	11	창년2부	정희영(12)
577	조은경	8	고등부	최미영(19)	599	김지연	21	창년1부	전종일(22)
578	유재미	2	대학부	정현영(13)	600	이서희	24	대학부	김재희(11)
579	조희정	14	창년2부	김영희(24)	601	김병수	22	창년1부	박병철(19)
580	신환희	18	고등부	이현진(17)	602	안성호	19	대학부	박효민(22)
581	원희진	25	사립부	이정희(7)					

* 순종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호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